

지역 소식 통

정읍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온(溫)온(ON) 사업 추진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립 위험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리, 치과치료, 식생활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읍시 지정기탁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취약계층의 고립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 온(溫)온(ON)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7421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95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다수 가구가 사회적 교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리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참여자들은 함께 요리를 배우고 나누는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미연장 가설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운영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 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축조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모양성제 준비 본격 돌입

고창군, 모양성제 행사대행용역 공고...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고창군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52회 고창모양성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전문 대행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행사는 고창군과 함께 축제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지역 인사, 문화 예술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고창군은 고창모양성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올해 축제는 더 새롭고, 더 화려하며,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읍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고창만의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고창읍성~꽃정원~자연미당 구역과 서문 민속마을까지 행사장을 대폭 확장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로 52회를 맞는 고창모양성제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진정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고창만의 독창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지난 23일 제106주년 3·1절 계기로 서훈이 수여된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고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6인의 후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선열들의 희생 · 정신을 군민과 함께”

고창군, 고창고보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23일 제106주년 3·1절 계기로 서훈이 수여된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고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6인의 후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28년부터 1980년까지 고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과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순옥(전북 김제), 이영규(전남 장성), 윤선호(전북 순창), 박재우(전남 무안), 윤옥하(전남 해남), 양희영(전남 화순) 선생의 후손 1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경과 보고, 군수 인사 말씀, 유족 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고창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정 내 현충시열인 '자유·평화·

진리의 탑'을 참배하고, 민족교육역사관을 관람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202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심덕섭 군수가 직접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독립운동가 108명의 포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결과, 올해 3·1절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윤옥하 선생 등 6인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찾아주신 유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군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역사적 가치 조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관협력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정읍아산병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 기관과 협약... 실질적 연계 · 사후관리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원 시범사업의 통합지원서비스 발굴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협약에는 정읍의 공공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정읍아산병원(원장 김잔디)과 지역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용)가 참여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지원서비스의 실질적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아산병원은 가정간호, 은빛자활

센터 운영,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시범관리, 응급지원, 예방교육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번기 인력지원 체계 강화

외국인 공공기숙사 개관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시는 지난 22일 오후 5시, 북면 칠북로에 위치한 공공기숙사에서 이화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과 필리핀 자스민 마갈레스 시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공공기숙사는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1441㎡) 규모로 객실 26실, 공동취사실과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최대 54명이 입주 가능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면접을 거쳐 선발된 우수 인력 39명을 기숙사에 입주시키고,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하루 단위로 유연하게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심화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핵심 농정 과제로 정하고 2022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속 진화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부안소방서, 상서면 콘크리트 공장 화재 40분 만에 진화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1분경 부안군 상서면 소재 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40분 만에 신속 진화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공장 내부 작업 중이던 직원이 연기와 화염을 목격해 119에 신고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공장동 내부에 화염이 부속 기계를 통해 확산하는 상황이었다.

소방서는 차량 17대(펌프차 3, 구조차 2, 구급차 등)와 인력 47명(소방 41, 경찰

4, 헌전 2)을 긴급 투입해 오전 8시 53분경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 원인은 현재 공장 내 시공기 및 믹서기 등 기계 부근에서의 점화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소철환 서장은 "공장 내 기계 화재는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과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